AUTHOR 채은수

TITLE 개혁주의와 부흥운동

IN 목사 계속 강의집
4권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90): 9-21.

추 천 사

우리 목회신학이 창설 된후 벌써 25회 학기에 걸친 수 많은 수강생과 12회에 걸쳐 수 많은 졸업생을 내었다. 1980년도에 한번 우리 총신대에 큰 파동이 있었을 때 신입생을 받지 못했지마는, 그래도 계속 우리 학원은 견실하게 발전하여 목사님들의 재교육에 공헌한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원세계에 있어서 전진이 아니면 후회가 있을 뿐인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잘 알고 있다. 그로므로 부단히 연구해야 할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계속교육 혹은 '연장교육'이란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 우리 〈목사 신학원〉이었다. 여름과 겨울, 계절마다 모여 오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수고하신 여러 강사님들의 노고로, 우리 학원이 목격한 바의 열매를 어느 정도 얻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졸업하신 여러 동창 목회자들의 요구와 또 그들의 수고로 개교 이후 15년 가까이 강의해온 여러 강사님들의 교안을 묶어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수고하신 동창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 이 귀한 책이 널리 읽혀져서 앞으로 더욱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을 윤택케 할수 있기를 삼가 바랄뿐이다.

1980년 2월 20일

전총신대학학장
전총회목회신학원장
현총회목회신학원 명예원장 김 희 보

개혁주의와 부흥운동

채은수 교수

1. 부흥의 필요

우리 기독인의 역사관은 역사가 자연이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역사가 진행되어 가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부단한 활동이 교회를 통한 구원역사에만 한(限)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역사에까지 미침은 물론이다.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소망을 상실하고 그의 활동이 침체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시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 넣어 열성적이 되게끔 역사하는 것이다. 환원하면 그는 침체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방치하시거나 멸망하도록 두시지 않는 것이다. 환원하면 그는 침체상

만약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치닫도록 허용하신다면 그것은 그의 구원의 목적과는 상치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역사상 부흥운동을 통하여야 일을 하실 필요는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은 부흥이란 수단을 인간의 영적인 삶을 일깨우는데와 영적인 교육을 진작시키는데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부흥운동이 필요함은 이런데 있다. 즉 인간은 개인이나 단체이거나 간에 항상 균형있는 삶을 준행하여야 하였지만 자주 긴장을 풀고 느슨하여지며 삶에 대하여 무미건조함을 느끼며 무력하여지는 상황에 빠졌던 것을 흔히 볼수 있다. 그런 상

태에 빠진 교회는 사회에서 맛잃은 소금처럼 무용의 것으로 후퇴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부흥운동이라는 방법을 채용하여 일하셨다.

부흥운동의 발단과 진행에는 시기가 반드시 있다. 그것은 수학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조건의 형성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16C 종교개혁운동, 17C 퓨리탄운동, 18C 웨슬레운동, 19C 원시 메도디스트 운동 가운데 그런 면을 찾을 수 있다.

부흥운동의 조건을 우리는 또한 살펴 볼 수 있다. 부흥의 직전 상황은 영적인 죽음의 상황이다. 즉 교회는 영적인 활력을 상실하여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종교 생활은 형식에 머물고 사람들은 신실성이 희박한 그런 상태에 처한 것이다. 18C의 뉴잉글랜드나 영국의 상황은 그런 것이었다. 이런 영적인 죽음의 상황은,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듯이 회복의 때가 있음을 말하였다. 악이 인간의 영혼에 최종의 왕국을 건설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 부흥 이전에 많은 성도들은 깊은 불만의 감정에 빠져 영적으로 갈급하였던 상태를 볼 수 있다. 무언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그 무엇을 찾음으로 해메였다. 그것은 마치 바알의 시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영적 부흥을 애타게 갈망하고 기도한 것과 같다. 그들의 심령은 어떤 고뇌에 찬 것임에 틀림없다.

각각의 부흥운동에는 독특성이 있는가 하면 공통성이 또한 거기에 있다. 그 공통성을 꼽으면 1) 각 부흥운동은 그것의 파급이 대단히 급속하다. 사람들은 단체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단체들 가운데 산불의 번짐과 같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말틴 루터의 비텐베르그(Wittenberg)교회 문에 95개조의 논문을 내걸었던 것은 하찮은 것 같았지만 그것의 파급은 불과 같은 것이었다. 1739년 2월 웨슬레가 브리스톨 근방의 광부들에게 야외에서 설교한 것이 브리스톨의 광부에서 시작하여 영국 전역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2) 개인과 교회가 죄의

깊은 의식을 경험하게 된다. 기쁨의 충만을 맛 보았다. 이사야가 말한 산과 언덕이 노래하여 들과 나무가 손뼉을 치는 것 같은 심정이 말한다. 3) 좋은 영향을 사회에 끼치는 것이다. 불쌍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심령연화로 사회 윤리에 영향을 미친다.

2. 부흥의 정의

우리는 부흥운동을 알기 위하여 부흥에 기여한 사람들이나 그 방면에 연구를 깊이한 사람들의 말에서 그것의 의미를 찾아 봄이 좋을 것이다.

미국의 19C 부흥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촬스 지 피니(Charles G. Finney)의 말을 보면 :

> 부흥이란 죄인을 일깨워 하나님께 회심시킴으로 그리스도인의 첫 사랑을 새롭게 함이다. 일반적으로 한 단체에서 종교의 부흥의 결과는 다소간 침체된 교회를 소생시키고 모든 계층을 다소 일깨우고 하나님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
> 부흥은 교회가 침체된 상태가 된 것을 전제하고, 부흥이란 교회가 침체로부터 돌아오는 것이고 죄인이 회심을 하는 것이다. (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 p.14)

요한 번스(John Burns)는 "부흥, 그것의 법칙과 지도자" (Revivals, Their Laws and Leaders)라는 고전적인 책을 저술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부흥을 이렇게 기술하였다. :

> 어떤 간격으로 어떤 지역에서 부흥의 열기가 휩쓴다. 영적 현실에 죽었고 무관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도있게 각성을 받게 된다. 그들은 세상직업에 붙들려 있는데, 그런 잘못에 대해 갑자기 두려움에 떨고 절박한 운명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두려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그들은 달아날 길을 구하고 구원을 위하여 울부짖는다. (Rivivals, Their Laws and Leaders, p. 1).

그에 의하면 부흥은 생명을 다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교적인 무활동에서 활동하게 됨을 말한다. 즉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서 각성하며 남을 또한 그런 자리로 나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플러신학교 선교학부의 교수였던 제이 에드윈 올 (J. Edwin Orr)은 부흥에 대한 깊은 연구와 저서들을 펴 낸 분이다. 그는 "하나님은 할 수 있는가?" (Can God?)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 그리스도 교회 위에 성경의 직접적 역사로서 부흥을 말한다. 일반적인 의견에 배치되나 그런 부흥은 반드시 불신자들의 집단운동만은 아니다. 그런 것은 각성의 결과이다. 종교의 참된 부흥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부흥"이란 단어의 의미는 생명을 다시 채운다는 의미이다. 일깨운다는 말은 잠자는 자, 부주의한 자, 중생하지 못한 자, 죽은 자에 해당한다.
>
> 역대하 7 : 14는 부흥의 원리를 말한다. 이 구절에서 추론되는 네 가지 원리는 겸손, 기도, 하나님의 교제, 죄의 회개이다. 이것들은 부흥의 원리들이다.

그는 또 다른 책 즉 "재 환기의 시간" (Times of Refreshing)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 새롭게 하는 시기들은 주님이 같이 함에서 기인한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이 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임재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방문하기를 원하심을 안다. 그런 때가 오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부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할 것이다. (Times of Refreshing, p.127).

윌버 엠 스미스 (Wibur M.Smith) 박사는 구약에 나타난 7번의 부흥운동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도출하였다. 그것은 부흥의 실체를 파악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모든 부흥은 깊은 도덕적 혹암과 국가적 하락의 때에 일어났다.

2) 그것은 헌신을 한 하나님의 종의 심령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부흥 뒤에 역사하는, 실천하는 힘이 되었고 국가를 깨우고 믿음에 인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사용한 대리자가 되었다.
3)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대개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는 결과를 낳았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설교함의 결과였다.
4) 각각의 부흥은 여호와의 경배에로 환원함에 이르렀다.
5) 모든 부흥은 우상의 파괴를 가져왔다.
6) 매 부흥에서는 죄에서 떠남이 있었다.
7) 매 부흥에는 속죄제를 드림이 있었다.
8)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9) 매 부흥에는 번영의 기간이 따랐다. (The Glorious Revival Under King Hezekiah, pp. 8-9)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부흥이 하나님으로 부터 오지 않으면 부흥이 아니다. 부흥은 먼저 죄의 회개에서 결과하는 것이다. 그것은 죄의 고백과 죄의 깨끗이 함이 따라야 된다." (The Glorious Revival Under King Hezekiah, p. 1)

아더 와리스(Arthur Wallis)는 부흥에 대한 연구를 한 저자이다. 그는 "당신의 능력의 날에서" (In The Day of Thy Power)에서 부흥을 정의하기를

> 부흥이란 영적인 일의 정상적인 과정 가운데 신적인 간섭이다. 그것은 대단한 성스러움과 불가항력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심이다. 인간적인 인격이 가리워지고 인간의 프로그램이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간은 뒤로 사라진다. 주님이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는 것과 성도와 죄인 가운데서 비상한 힘으로 역사한다.

그는 또 계속하기를

부흥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이다. 다시 나지 못하고 비활동적인 자까지도 인식을 바르게 함이다. 부흥이란 반드시 단체 위에 영향을 준다. 그것은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에서 그것으로 부터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아이 디. 이 토마스(I. D. E. Thomus)는 부흥을 기술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열두어명의 사람들이 손을 드는 경우와는 다르고 놀라운 죄책감을 가지고 쇄도하는 무리들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영혼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생사의 문제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놀라운 죄책감, 심령에서 울어나는 고백, 고조하는 열정으로 도전된다. 천국의 문이 밀려오는 홍수로 넓게 열려질 때를 말한다.

윙키 프레트니(Winkie Pratney)는 그의 책 "부흥" (Rivival)에서 부흥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구약에서 부흥이란 말은 Chayah (Khawyaw)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그것은 활력있게 한다. 영양을 준다. 활력을 보존한다. 일으킨다. 희복한다. 재수(再修) 한다. 환원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구약에서 14번 사용되었다. 그 말은 시85 : 6에서 찾는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필요) 주의 백성으로 (주요한 부흥의 주제) 주를 기뻐하게 (부흥의 결과, 부흥의 목적) 아니하겠나니까?" 또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원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난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학 3 : 2)

프레트니에 의하면 신약에는 부흥이란 말이 5번 나타난다고 한다. 그것은 anazao라는 말이라고 한다. 그 말은 탕자의 복귀와 주의 부활(롬 14 : 9) 마

지막날의 죽은자의 부활 (계 20 : 5) 죄의 결과(롬 7 : 9)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부흥의 의미를 딤후 1 : 6에서와 행2 : 17에서도 찾는다.

그는 부흥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요약한다.

1) 죽음에서 삶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죽음이란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생명을 가져 보지 못한데서 회생을 의미한다.

2) 권태의 상태로 부터 활동의 상태로 부름을 의미한다. (이사야 64 : 1-3 참조).

3) 게으름, 망각, 애매함, 저기압에서 회복을 의미함.

4) 종교에 대하여 새롭게 되며 능동적인 주의와 관심을 보임을 말한다.

콜린 씨 휫테이크 (Colin C. Whittaker)는 그의 위대한 "부흥을" (Great Revivals)에서 부흥을 기술하고 있다.

그의 의하면 부흥이란 제4의 R이라고 한다. 즉 첫째 R은 개혁(Reformation)인데 교리에 관한 것이고 제2의 R은 재생(Renewal)인데 활력에 관한 것이고 제3은 원상복귀(restoration)인데 방향의 전환에 관한 것이고 부흥(Revival)은 제4의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서 가능한 것이라 한다.

3. 죠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의 부흥론

그는 그의 저서 "종교감정의 취급" (A Treatise on Religious Affections)을 통하여 그의 부흥론을 펴고 있다. 그는 종교에 작용하는 심리를 예리하게 분석한다. 흔히 감정주의와 신비주의가 판을 치는 부흥집회를 보았고 그런 감정이 결코 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였다. 그는 종교에서의 감정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그는 모든 종교적인 감정을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더우기 그는 그런 감정에 호소

하며 그런 감정적인 기교만을 능사로 삼는 어떤 부흥사들을 경계한다. 그런 들뜬 감정이 신자의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꿰뚫어 보았고, 그런 것이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퓨리탄적인 싸늘하고 무반응적인 종교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그는 종교에 있어서 두 가지 심리적 병적 증상을 들고 있는데 즉 1) 무관심(indifference)과 2) 이지주의(理知主義)가 바로 그것이다.

아래에 그 책의 구조를 한번 개관하여 보면 이렇다:

제1부 감정의 성격과 종교에 있어서 그것의 중요성(벧전 1 : 8)

참된 종교는 거룩한 감정으로 구성한다. 감정은 영혼을 지도하기 위한 활기있는 의지의 경향이다. 여기에서 말한 의지는 이해를 뛰어 넘는 것이다. 이해뿐일 경우 행동과는 연결이 안된다. 그러나 의지는 이해의 바탕위에 행동에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의지는 또한 감정과 연결이 된다. 즉 의지가 활기있게 되고 예민하여 지면 그것은 감정이 된다. 이런 감정은 결코 이해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유는 이런 감정은 일종의 생기있는 의지이고 그 의지는 이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깔기 때문이다.

종교적 감정에 대해 여기에서 몇 가지를 지적한다:

1. 감정을 부인하는 자는 심령으로 드리는 활력있는 예배를 부인하는 자이다.

2. 하나님은 감정을 인간 행동의 원천으로 본다.

3. 인간이 종교를 행동화하기 위하여 마음이 먼저 감정으로 사로잡혀야만 한다.

4. 성경은 종교생활을 감정에 둔다.

5. 참 종교는 특별히 사랑 가운데 발견된다. 그것은 모든 다른 감정의 원천이 된다.

6.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에게서 종교적 감정의 면을 볼 수 있다.

7.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운 심령(감정)의 소유자였다.

8. 천국의 종교는 감정으로 구성된다.

9. 감정은 참 종교의 표현이다.

10. 감정은 심령에 있다. 죄는 심령이 강팍함에서 기인한다.

감정을 거절하는 자는 참된 종교의 샘을 거절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감정에 와 닿아야 할 것이다.

감정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면을 볼 수 있다. 그렇게되면 하나님께 전 영혼을 기울임이 되며 그런 영혼의 행동은 능히 구원에 연결된다. 감정의 다른 면은 옛 삶의 방법을 버림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는 감정을 옹호한다. 그러나 감정을 광신(fanaticism)과는 구분한다. 그는 무엇이 참된 감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규준을 설정한다.

제2부 참된 감정과 유사 감정 구분의 난점(難點)

여기에서 난관은 종교적 감정이 참으로 은혜로운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참된 종교적 감정이 되려고 한다면 전체적인 조화에서 구별된다. 여하튼 아래에는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의 상태를 말한다.

1. 격앙된 감정 : 그것은 참된 은혜로운 감정인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눅 10 : 27, 마 5 : 12, 시 68 : 3, 눅 6 : 23). 격앙된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도록 요구하였을 때,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다.

2. 감정이 몸의 부분에 강하게 영향을 줌 : 그것은 참된 감정일 수 있으나 아닐 수도 있다. 이유는 거기에는 성령의 작용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마귀의 것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종교를 말함에 유창함 : 그것만 가지고 진위를 가리기 어려움. 어떤 경우 비없는 구름과 바람처럼 거짓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4.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흥분이 되지 않는 자들 : 흥분으로써 감정의 진위를 구별하지 못함. 하나님의 영은 고요함과 인지할 수 없는 방법 가운데 역사하신다.

5. 마음에 성경 본문을 적용시킴 : 그것 역시 진위의 판단의 증표가 못 된다. 돌짝밭의 마음도 성경을 일시적으로 받는다. 그러나 시련의 때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6. 위대한 사랑의 출현이 따름 : 사탄이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것처럼 체하는 것으로 속일 수 있다. 호산나하고 주를 따르던 사람들의 사랑의 감정은 진실이 아니었다.

7. 동시에 여러가지 감정을 다 가짐 : 그것이 진위의 증표가 아니다.

8. 각성과 회개 후 위안과 기쁨이 있음 : 그것이 진위의 증표가 못 된다. 이유는 그런 증거가 뚜렷이 없었다고 그 사람이 회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9. 종교에 시간을 많이 할애함과 경배의 외적 의무를 잘 수행함 : 그것 역시 은혜의 징표라고 단언하지 못한다(겔 33 : 31, 32).

10.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돌림 : 그것 역시 진위의 징표가 못된다.

11.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확신 : 의심이 없다고 하여 참된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유는 의식자들, 즉 바리새인들도 자기 구원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12. 다른 경건한 사람에 의하여 수용됨 : 다윗이 아히도벨과의 대화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넘어졌을 때 그는 크게 놀라고 실망하였다. 인간은 잘못 판단할 때가 많다. 알곡과 가라지는 심판의 때에구분이 된다.

제3부 참된 은혜 그리고 거룩한 감정의 독특한 표식

믿는자 가운데 성령의 내주 (內主)하심을 지시하는 12가지 증표가 있다. 어떤 증표는 의지의 경향이거나 태도이다. 그것을 통하여 성경이 같이 하심을 알 수 있다. 어떤 증표는 믿는 자의 삶에서 성령의 활동을 지시한다. 이런 증표들은 거짓 감정과 성령의 현존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규준을 제공한다. 어떤 것은 삶의 내적 내용이 아니고 외적인 것을 언급한다.

1. 은혜롭고 영적인 감정의 기원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적이다. 즉 그런 기원의 것이 인간 심령위에 작동함으로 그런 감정들이 발생한다.

2. 은혜로운 감정의 첫번째 객관적인 특성은 초월적이고 탁월하여 신적인 것을 찬양한다. 그런 감정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에 이른다.

3. 은혜로운 감정은 신적인 사물에 대한 사랑 위에 그 토대를 이룬다.

4. 은혜로운 감정의 발생 원인은 신적인 사물을 이해함에서이다. 그런 이해를 위하여 성경 연구가 필수적이다.

5. 은혜로운 감정은 심판에 대한 이성적이고 영적인 확신에서 기인한다.

6. 은혜로운 감정은 복음적인 겸손이 함께 한다. 자신의 불충분성, 미천성 그리고 추악스러움에 대한 감각을 가진다. 복음적인 겸손이라고 말함은 그것이 법적인 것과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법적인 겸손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성을 인식하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인간의 양심을 찌를지 몰라도 그 이상은 할수 없는 것이다. 복음적 겸손이란 하나님의 주권성과 그의 도덕적 탁월성에 대한 인식에서 온다. 이 인식은 신자의 위치에 대한 재평가에 이르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적절성을 느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사랑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7. 은혜로운 감정은 기질과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게 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8. 은혜로운 감정은 사랑, 겸손, 조용함, 용서 그리고 자비의 영을 촉진시킨다.

9. 은혜로운 감정은 심령을 부드럽게 한다.

10. 은혜로운 감정은 균형을 이룬다. 신자는 든든하고 감정표현에 확실하고 성숙한 것이다.

11. 은혜로운 감정은 영적인 입맛을 증가시킨다. 거짓 감정은 침체되거나 스스로 자만하고 만족하여 버린다. 성도는 은혜 가운데 성장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증가한다.

12. 은혜로운 감정은 열매를 맺는다. 업적이 없는 성자는 어떻게 설명할까? 성자의 행동에 있어서 후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성격이 아니다. 새로운 감각, 이해가 있다면 새로운 태도가 생기게 마련이다. 새로운 태도는 세계에서 거룩하게 되려는 의지이다.

4. 찰스 그랜디손 피니(Charles Grandison Finney)

우리는 그의 부흥 철학을 그의 저서 "종교 부흥에 대한 강의" (Lecrures on Rivivals of Religion)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최초의 현대적 부흥사라고 칭할 수 있다. 이유는 그의 특이한 부흥 철학때문이다. 그는 가슴의 종교, 경험의 종교에 강조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는 종교심리학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부흥을 인간의 활동으로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흥의 수단을 축복하여야만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바른 원인이 있어야 회심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는 부흥은 어느 때이고 일어난다고 한다. 부흥은 인간이 작동할 것이 못된다는 종래의 사상을 거절한다. 부흥을 위한 설교는 단순한 복음 설교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부흥의 설교는 심령의 묵은 땅을 귀경하여 죄인을 불러 들이는 결과가 따른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교회의 성화는 부흥에 의존된다고 한다. "한 교회가 성화되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천국을 위하여 적절하게 되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한다.

그는 기도를 부흥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연결로 본다. 부흥을 위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고 한다.